

5대은행 자영업자 연체 1조원 돌파...1년새 37% ↑

고금리 직격탄...1분기 말 기준 연체 대출 1조3560억원 달해

최근 임대 사업자·개인 병원 등 액수 큰 여신 연체 빠르게 늘어

고금리에 대출 원리금을 제때 상환하지 못하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등 개인사업자 수가 눈에 띄게 늘고 있다.

8일 금융권에 따르면 국내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에서 1개월 이상 연체된 개인사업자(소호) 대출 총액은 올해 1분기 말 기준 1조3560억원에 달했다.

지난해 1분기 말(9870억원)보다 3690억원(37.4%) 급증한 수치다.

이 기간 개인 사업자 대출 총액이 314조6860억

원에서 322조3690억원으로 2.4% 증가했으나, 연체가 더 빠른 속도로 늘어 5대 은행 평균 연체율이 0.31%에서 0.42%로 뛰었다.

은행별로 보면, KB국민은행의 개인사업자 연체는 지난해 1분기 말 1730억원에서 올해 1분기 말 2640억원으로 52.6% 증가했다. 이에 따라 연체율도 0.20%에서 0.29%로 높아졌다.

신한은행은 연체가 2150억원에서 2660억원으로 23.7% 늘고, 연체율이 0.33%에서 0.40%로 상승했다. 하나은행도 2410억원에서 2770억원,

0.41%에서 0.47%로 비슷한 흐름을 나타냈다.

우리은행의 경우 연체가 1650억원에서 2030억원으로 22.7% 늘고, 연체율이 0.32%에서 0.40%로 높아졌으며, NH농협은행 역시 연체가 1930억원에서 3460억원으로 79.3% 증가하고, 연체율이 0.36%에서 0.63%로 크게 상승했다.

코로나19 이후 급증했던 대출 만기가 점차 돌아오면서 상대적으로 상환 능력이 부족한 취약 차주를 중심으로 연체가 쌓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최근 임대 사업자, 개인 병원 등 비교적 액수가 큰 여신들의 연체가 빠르게 늘면서 전체 연체율이 높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부실 채권 매각과 상각을 늘리고 있는데

도, 연체가 쉽게 잡히지 않고 있다"고 부연했다.

다른 은행 관계자는 "팬데믹 기간에 지역 신용보증재단의 소상공인 사업자 대출 지원이 많았는데, 해당 대출 연체가 급증하는 추세"라고 전했다.

대출 상황에 애를 먹는 개인 사업자들은 고금리 부담에 노출된 경우가 대부분으로, 기준금리 인하 시점이 미뤄질수록 연체도 누적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앞서 한국은행은 지난해 12월 금융안정보고서에서 "높은 대출금리 부담이 지속되는 가운데 자영업자의 소득 여건 개선이 지연되고 상업용 부동산 시장이 부진한 모습을 보일 경우 취약 차주를 중심으로 부실 규모가 확대될 수 있다"고 경고한 바 있다. /장윤영 기자 zzang@kwangju.co.kr

전기차용 타이어 캐릭터

금호타이어 '또리' 공개



금호타이어(대표 정일택)가 전기차용 타이어 캐릭터 '또리' (사진)를 공개했다. 전기차용 타이어 브랜드 'EnnoV(이노뷰)' 출시 이후 선보이는 또리는 '타이어의 신'이라는 세계관에 착안한 기존 금호타이어 캐릭터인 '또로'와 '로로' 사이에서 탄생한 전기차용 타이어를 상징하는 캐릭터다.

금호타이어는 앞으로 또리의 성장 에피소드를 담아, 광고와 공식 유튜브, 인스타그램, 오픈런 행사 등에서 선보일 계획이다.

금호타이어는 캐릭터를 활용한 다양한 콘텐츠를 제공한다. 특히 금호타이어 유튜브 채널인 '엑스타 TV'는 또로로가 출연해 소비자들과 소통 접점을 확대하고 있다.

금호타이어는 또 또로로로의 친근한 브랜드 이미지를 활용해 '안전'과 관련된 공익성 캠페인 활동을 진행 중이다. 멀티플렉스 CGV 비상대피도 안내광고를 진행 중이며, 골프의 대중화를 이끈 스크린 골프존 에티켓 광고도 4년 연속 진행 중이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광주은행 대학생 홍보대사 30명 발대식

브랜드 홍보·콘텐츠 제작 등 활동

광주은행(은행장 고병일)은 최근 본점에서 '대학생 홍보대사 14기 발대식'을 개최했다고 8일 밝혔다.

발대식에는 고병일 광주은행장과 임직원, 대학생 홍보대사 등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번 광주은행 14기 대학생 홍보대사는 광주·전남지역 소재 대학생 30명으로 구성됐다. 오는 11월까지 광주은행 ESG공헌활동 참여 및 브랜드 홍보, 젊은 고객과의 소통, 뉴미디어 콘텐츠 제작 등의 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광주은행은 선발된 대학생 홍보대사에게 매월 활동비와 단체복을 지급하며, 성과에 따라 우수 팀 및 개인 포상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한다.

고병일 광주은행장은 "광주은행이 지역민과 함께 상생하고 성장하기 위해서는 젊은 지역 소재 대학생 홍보대사들의 창조적이고 협동적인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며 "이들이 광주은행의 일원으로 함께 다양한 활동에 적극 참여해 본인 스스로도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광주은행 대학생 홍보대사는 지난 2008년 처음으로 시작돼 올해까지, 총 440명의 수료자를 배출했다. 광주은행은 이를 통해 광주·전남 지역 소재 대학생들에게 협업 프로젝트 기획 및 수행을 바탕으로 ESG공헌활동과 직장체험 등 다양한 대외활동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지역 인재 양성에 이바지하고 있다.

/장윤영 기자 zzang@kwangju.co.kr



중기중앙회 광주전남지역본부

중대재해법 등 현안 공유 간담회

중소기업중앙회 광주전남지역본부(회장 임정준)는 8일 기자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지역 일간지 기자단 7명과 임정준 광주전남회장을 비롯 광주전남 중소기업 협동조합 이사장협의회 회장단이 참석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이날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추진경과 등 주요현안을 공유하고, 기업승계 활성화, 납품단가 연동제 개선, 노동시장 규제혁신 등 제22대 국회에 바라는 중소기업 핵심 정책과제를 설명했다. 특히 중소기업기본법에서 정하고 있는 중소기업주주간(5월 3주)을 맞아 광주전남 중소기업인대회 등 우리지역에서 개최예정인 다양한 행사에 대한 적극적인 보도협조와 함께 노란우산(소기업·소상공인공제) 가입확대를 위한 홍보를 요청했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병원비·약값 줄줄이 상승...한방·치과진료비도 '경충'

1분기 입원비 6년만에 최대 상승

소화제 11.4%↑·감기약 7.1%↑

지난해 결정된 건강보험 의료수가 인상분이 올해 반영되면서 병원비·약값이 줄줄이 상승세다.

특히 소화제·감기약 등 일부 상비약의 물가 상승 폭은 전체 소비자물가의 2~4배 수준에 달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8일 통계청 국가통계포털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입원진료비 물가지수는 1년 전보다 1.9% 상승했다. 2017년 3분기(1.9%) 이후 6년 반 만의 최대 상승 폭이다.

입원진료비 상승률은 코로나19 팬데믹 당시인 2020년 3~4분기 1.8%를 기록한 뒤 2년간 1.5%

를 유지했지만 지난해(1.7%)에 이어 올해 상승 폭이 확대됐다.

지난해 1.8% 올랐던 외래 진료비도 올해 1분기 2.0% 오르며 다시 상승세다.

한방·치과진료비는 더 빠른 속도로 오르고 있다.

치과진료비는 1분기 3.2% 올라 2009년 3분기(3.4%) 이후 증가 폭이 가장 컸다. 한방진료비도 3.6% 올랐다. 2012년 4분기(3.7%) 이후 11년여 만에 최대 상승 폭이다.

새해 들어 진료비가 일제히 오른 것은 지난해 결정된 건강보험 의료수가 인상에 따른 것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에 따르면 올해 건강보험공단이 의료기관에 지급하는 수가의 평균 인상률은 1.98%다. /장윤영 기자 zzang@kwangju.co.kr

약값의 본인부담액도 수가 인상 폭만큼 오르면서 관련 물가지수도 상승세를 보였다.

소화제는 올해 1분기 11.4%, 감기약은 7.1% 올랐다. 피부질환제(6.8%), 비타민제(6.9%), 진통제(5.8%), 한방약(7.5%) 등도 같은 기간 전체 물가 상승률(3.0%)을 웃돌았다.

1분기 전체 의약품 물가는 2.0% 상승했다. 지난해 2.1% 오르며 2011년(2.4%) 이후 12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오른 데 이어 4개 분기 연속 2%대 상승률을 이어갔다.

통계청 관계자는 "병원·치과·한방 진료비 인상은 건강보험 수가 인상분이 반영된 결과"라며 "약 출고가가 인상되면서 의약품 물가지수도 상승세"라고 말했다.



8일 열린 '장성복합물류센터' 개장식에 참석한 농협중앙회 관계자 등 내외빈들이 기념촬영을 갖고 있다.

농협 호남권 최대 장성복합물류센터 개장식

최첨단 시스템·자동화설비 갖춰

농협은 8일 장성에서 '장성복합물류센터' 개장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장성복합물류센터는 대지면적 9만1395㎡(2만7647평) 규모, 호남권역 최대 종합물류기지로 ▲호남농산물물류센터(농산물) ▲호남자재유통센터(농자재) ▲마트사업호남지사(생활물자)로 구성된 호남권 물류거점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특히 디지털상품분배시스템(DAS), 쿨체인 배송시스템 등 최신 물류시스템과 크로스벨트 소터, 로봇 다팔렛타이저 등 최첨단 자동화설비를 도입하여 물류비 절감 및 농가 실익증진에 더욱 기여할 것으로 농협은 기대하고 있다.

농협은 물류효율화 및 인프라 구축을 위해 지난 2010년 평택물류센터를 시작으로 안성농식품물

류센터(수도권), 밀양물류센터(영남권), 횡성물류센터(강원권), 제주물류센터(제주권)를 건립했으며, 이번 장성복합물류센터 완공으로 전국단위 물류망을 구축했다.

이날 개장식에는 이계호 국회의원, 강호동 농협중앙회장, 박석홍 농업경제대표이사, 전남 관내 조합장 등이 참석했으며, 농협은 개장을 기념해 장성군에 1000만원 상당의 '사랑의 쌀(10kg 400포)'을 전달했다.

강호동 농협중앙회장은 "호남권역 물류의 핵심 거점 역할을 수행할 장성복합물류센터의 본격적인 운영으로 농협의 물류 경쟁력을 한층 더 강화할 수 있게 되었다"며 "전국 5대 권역 물류센터를 바탕으로 범농협 물류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통해 지속적인 물류혁신을 이루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삼성전자 모델이 지스타 2023 오디세이 체험존에서 오디세이 'OLED G9'을 소개하고 있다.

삼성전자, OLED 모니터 1년만에 세계 1위

게이밍 모니터 시장 5년 연속 1위

삼성전자는 글로벌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모니터 시장 진출 1년 만에 글로벌 판매 1위를 달성했다고 8일 밝혔다.

시장조사업체 IDC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지난해 글로벌 OLED 모니터 시장에서 금액 기준 34.7%, 수량 기준 28.3%의 점유율을 기록하며 각각 1위에 올랐다.

삼성전자는 지난해 글로벌 게이밍 모니터 시장에서는 금액 기준 점유율 20.8%로 5년 연속 1위 자리를 지켰다.

삼성전자는 2022년 10월 첫 OLED 모니터인 34형 오디세이 OLED G8 출시를 시작으로 작년에는 49형 오디세이 OLED G9를 내세워 시장을 적극 공략하고 있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연초 'CES 2024'에서도 OLED 모니터 신제품을 대거 선보였다. 특히 오디세이 OLED G9는 CES에서 컴퓨터 주변 기기 부문 혁신상을 받기도 했다.

삼성전자는 올해 ▲ 32형 4K 해상도 오디세이 OLED G8 ▲ 27형 QHD 해상도 오디세이 OLED G6 ▲ 2024년형 오디세이 OLED G9 등을 새롭게 출시할 예정이다.

정훈 삼성전자 영상디스플레이사업부 부사장은 "OLED 모니터 시장 진출 1년 만에 글로벌 1위 달성은 게이머들이 뛰어난 화질과 압도적인 게이밍 성능을 경험할 수 있도록 기술 혁신을 거듭한 결과"라며 "게이머들에게 최고의 게이밍 기기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앞으로도 끊임없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500대 기업 진입 하한선

8년만에 전년보다 낮아졌다

이차전지 소재 기업 약진

올해 국내 매출 상위 500대 기업에 진입하기 위한 하한선이 2016년 이후 8년 만에 처음으로 전년보다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삼성전자가 매출 감소에도 부동의 1위를 고수했고, 현대차그룹은 현대차와 기아, 현대모비스 등 3곳을 10위 안에 올렸다.

8일 기업데이터연구소 CEO스코어에 따르면 공개한 국내 기업을 대상으로 2023년 매출액(연결 기준, 지주사·지배기업은 개별 기준) 기준 국내 500대 기업을 선정한 결과, 500대 기업 진입을 위한 매출 하한선은 1조2969억원으로 전년(1조386억원)보다 117억원 감소했다.

500대 기업의 지난해 매출은 총 3902조6459억원으로 전년(4059조7544억원)보다 3.9% 감소했고, 영업이익은 202조2467억원으로 전년(236조354억원) 대비 14.3% 줄었다. 10위권에는 현대모비스와 LG화학이 신규 진입했다.

현대모비스는 11위에서 6위로 올라섰고, LG화학은 12위에서 7위로 상승했다.

한편 GS칼텍스는 7위에서 11위로 내려앉았고, 메리츠증권은 8위에서 13위로 밀려났다.

인천국제공항공사와 제주항공, CJ CGV, 강원랜드 등 여행·여가 관련 기업들이 코로나19 영향에서 벗어나면서 500대 기업에 재진입했다.

이차전지 소재 기업인 에스티엠과 전지차 부품 기업인 LG마그나피파워트레인, 전지결제 관련 기업인 네이퍼파이낸셜, 비바리퍼블리카, KG이니시스 등도 약진하며 500대 기업에 새로 진입했다.

전년 대비 순위가 가장 많이 오른 기업은 에코프로이엠(346위→193위)이고 카카오펌크(409위→273위)와 하나금융지주(465위→335위), 하나카드(442위→337위) 등도 크게 올랐다.

순위가 가장 많이 하락한 기업은 지난해 1월 지주회사로 전환해 매출 기준이 연결에서 개별로 변경된 중흥토건(75위→493위)이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한 눈에 보는 경제지표	
↑ 코스피	2745.05 (+10.69)
↑ 코스닥	872.42 (+1.16)
↓ 금리(국고채 3년)	3.439 (-0.009)
↑ 환율(USD)	1361.50 (+1.40)